

< 대구서광교회 구역장 권찰 모임 >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2026년 열세번째 모임)

♡ 구역예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

1. 서로 환영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2. 구역장님(혹은 구역식구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구역예배를 여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3.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찬송가 442장 혹은 구역이 좋아하는 찬송).
4. 다음 주일 받을 말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20~23절, 29~30절 ※구약 681쪽).

5. 주일에 받으실 은혜를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나눕니다.

< 10월 4일 주일 말씀 - “오늘에 가득한 은혜” >

우리의 삶에는 기쁜 날도 있고 힘들고 막막한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 그 순간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위기의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오늘에도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2) 오늘의 은혜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멸망할 것 같았던 위기의 날이 은혜와 승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3) 오늘의 연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낸 오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오늘이 하루하루 쌓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쌓인 믿음의 오늘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비어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낸 오늘이 쌓여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일생이 될 것입니다.

6. 말씀에 대한 나눔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기도제목들과 함께 아래의 기도제목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 1) 우리 대구서광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2)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 3) 서광의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 제직들이 기쁨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 4) 구역 책임자들을 붙드시고 모든 구역들 가운데 영적, 양적 성장의 은혜를 주소서!
- 5)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주소서!
- 6) 입시생과 취준생 그리고 교회학교, 청년부, 3040세대 가운데 동행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 7)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이 매주 찾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 8) 대한민국과 대구의 복음화와 경제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 9)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10)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네팔과 열방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7. 주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혹은 구역이 좋아하는 찬송).

8. 구역장님(혹은 구역식구분들 가운데 한 분)의 광고(주일 주보 참조) 후
다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구역예배를 마칩니다.^^